

외대학보

875 호

2006년 3월 2일 (목요일)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박철 편집인 겸 주간 양민정 편집장 임선현 인쇄인 홍윤주 신문사 2173-2503, 962-7128(F) 학생기자실 (서울)2173-2504 FAX 2173-2505 (용인)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란면 황산리 산 89

우리 대학, 대중평 최우수 대학 선정

1주기 대중평 개선사항 여전히 지적돼

지난 16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발표한 05년 대학종합평가(대중평) 결과 우리 학교 학부와 대학원 모두 종합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2주기 대중평은 대학교육의 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지난 01년부터 05년까지 해마다 신청대학에 한해 진행됐다. 이에 지난 해 61개 대학의 평가 결과 학부는 우리대학을 포함한 9개 대학이, 대학원은 우리대학을 포함한 7개 대학이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이민중 기획조정처 부처장은 “충분한 준비기간과 함께 학생들의 많은 도움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또한 “평가위

원들이 우리 대학의 발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부 종합 평가는 △대학 경영 및 재정 △발전 전략 및 비전 △교육 및 사회봉사 △연구 및 산학협 동 △학생 및 교수 직원 △교육 여건 및 지원체제 등 6개의 영역에 걸쳐 진행됐다. 우리 대학은 대학경영 및 재정과 학생 및 교수·직원의 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원 종합평가는 △발전 전략 및 비전 △교육 △학사 및 논문 △연구 △대학원생 및 교수·직원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등 6개의 영역에 걸쳐 평가가 진행됐으며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한 중

합평가와 함께 학문분야별 대학평가도 시행했지만 우리 대학은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의 평가로 우리대학은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드러나면서 앞으로 많은 과제를 남겼다. 특히 단점으로 지적된 ‘학생 1인당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반면 법인 전입금 비율이 낮다’와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많고 시간 강사 비율이 높으며 보직비율이 높다’는 점은 07년에 받았던 대중평 1주기 결과에서 개선할 점으로 지

적됐던 것과 동일하다. 결국 이 같은 평가는 대학경영 및 재정 영역과 학생 및 교수·직원 영역이 우수 등급을 받은 것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점으로는 ‘교육이념, 목적, 목표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제간의 연계성이 높다’와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교수방법개발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구분	학부 최우수(9개교)	대학원 최우수(7개교)
대학명	한국외대, 경희대, 고려대(서울), 성균관대, 상명대(서울), 숙명여대, 산대, 중앙대(서울), 중앙대(인성)	한국외대, 경희대, 고려대, 상명대(서울), 성균관대, 숙명여대, 중앙대



▲ 지난 28일(월) 열린 총장 이·취임식에서 신임 박 철 총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총장 이·취임식 지난 달 28일 열려

박 철 교수(스페인어과)가 지난 달 28일(화) 열린 이·취임식을 기점으로 우리 학교 8대 총장에 정식 취임했다. 한편 7대 총장으로 재직했던 안병만 교수(행정학과)는 28일자로 정년퇴임을 맞는다. 국제관 에경홀에서 열린 7·8대 총장 이·취임식은 법인 인사로 비롯한 학교 교직원, 총동문회 임원 및 총학생회 임원과 초대받은 외부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정창영 연세대 총장과 하오 평 북경외대 총장 그리고 30여개 나라의 주한 외국 대사가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신임총장 임명장 수여, 이사장 차사에 이어 진행된 이임사에서 안병만 전 총장은 “구성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재단 정상화와 대중평 최우수 대학 선정 등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신임 박 철 총장은 “그 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유·무형의 자산을 총동원하여 대학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 총장은 취임사에서 5가지의 목표를 강조했는데 △대학발전 마스터플랜을 통해 정보화·세계화·특성화를 수립 △학교행정의 투명성·공정

성·효율성이라는 원칙하에 책임 관리 중심의 대학경영체제로의 변換 △교직원 복지 향상과 열린 대학, 열린 경영의 구현 △기금 조성 전문화 체제와 학부보 및 동문들의 학교 재정 지원체제 구축 △용인캠퍼스의 변형에 총력을 다할 것 등이다. 이날 이·취임식 이후 오후 7시에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취임 축하연이 진행됐다. 한편 이·취임식이 열리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운동을 벌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학위수여식 지난 24일 첫 분리시행

양배울터 학위수여식이 지난 24일(금)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에 서울배울터와 용인배울터 노천극장에서 각각 열렸다.

첫 분리시행으로 주목을 끌었던 이번 학위수여식은 그동안 교통이나 공간의 혼잡이 많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졸업한 박영근(동양·일본 01)양은 시원스럽다는 소감을 밝히며 “학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추억을 많이 남기길 바란다”는 말을 후배들에게 전했다. 또한 이번 학위수여식 분리시행에 대해 김형성(정보산업공·정보통신 99)군은 “기존의 졸업식은 남의 몫이 없었 해 막히는 기분이었는데”며 이번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양배울터 모두 3개 배울터 교무처장의 사회로 △총장 격려사 △총동문회장 축하사 △학사보고 △상장수여 △학위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안병만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캠퍼스에서 투주한 노력과 인내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성장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학생생활의 꿈을 버리지



▲ 지난 24일(금)에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이날주 이사장이 백진영에게 장학장상을 수여하고 있다.

않다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격려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2837명의 양배울터 학생들이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일반대학원을 포함한 7개의 대학원에서는 28명이 박사학위를, 398명이 석사학위를 받았다.

장학장상은 백진영(동유럽·루마니아어 00)양이 단과대학 학업성

적 우수자에는 최진성(영어·통번역 전공 02)양 외 13명이, 총동문회장상에는 정진경(사범·한국어교육 02)양과 진종영(경상·경영정보 98)군이 받았다. 공로상에는 지난 해 양배울터 총학생회장이었던 박종원(법학 99)군과 정승화(자연·환경 99)군 외 23명이 받았다.

임	편집장 임선현(서유림·영어 04) 대학부 부장 김형민(경상·경제 04) 대학부 차장 박수진(사상·스칸디나비아어 05) 손보람(사회·언론정보학 05) 채송이(아시아아프리카·아프리카 05) 사회부 차장 김태현(사회·언론정보학 04) 오재훈(영어·영미문학 05) 문화부 차장 장소라(사상·포르투갈어 05) 홍은이(아시아아프리카·중국어 05)
----------	---

박	편집장 곽은서(사상·불어 03)
바	바르 자한 874호 '서울배울터 건축공사 드디어 착공' 기사에서 "올해는 교비에서 138억"과 "총 220억이 투자" 부분을 "올해는 교비에서 70억", "총 142억이 투자"로 바로잡습니다.

외대학보

양일간에 걸쳐 전체교수간담회 열려

각 단과대학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05년 동계 전체교수간담회가 지난 20일(월)과 21일(화)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이천 미리산 호텔에서 진행됐다. 신임총장 박철교수(스페인어)의 주재로 진행된 전체교수간담회는 20일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인사위원회 보고, 교수협의회(교협) 회의, 단과대학별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협 회의에서는 법인이 지난 달 19일(금) 4명의 이사를 유임시키기로 한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

했다. 지난 1년 간의 활동 보고와 함께 정년퇴임 교수 7명에 대한 기념배증 수여 진행된 논의에서 “중대사안인 만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협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교협 회장 김중열교수(경제학과)가 밝혔다. 김교수는 “임기가 만료되는 4명의 이사 중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가 추천한 2인의 이사에 대해 재정적 후원을 할 인사로 정해야 한다는 정관을 무시하고 기존 이사들의 유임을 결정했다”며 논

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교협은 교육부에 법인의 이사 승인 요청에 대해 취소 요청을 한 상태다. 한편 교협회의 이후 진행된 단과대학별 회의에서는 각 단과대 학장들의 주관으로 △각 단과대학의 자율성 강화 △평형적효율성과 △교직원 복지향상 △기금 확충 등의 방안에 대해 토의가 이뤄졌다. 또한 성희룡 예방교수 및 기금 확충방안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 부럽다!

너의 입학을 축하하는 수많은 혜택들!

그 중에서도...

너의 지성과 영혼을 깨워줄

‘엄청난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돼!

외대학보 기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지금 왔구요!

◆ 외대학보 75기 수습기자모집 ◆

- 모집기간: 3/2(목) ~ 3/15(수)
- 필기교사: 3/16(목) 저녁 7시
- 면접교사: 3/17(금) 저녁 7시

◆ 연락처 ◆

- 서울: 02)969-8887
- 용인: 031)330-4112
- 편집장: 010-4400-4018
- 부장: 010-3007-1183
- 사회부차장: 011-9629-1061

◆ 위치 ◆

- (서울)학생회관 117호
- (용인)학생회관 212호

* 학보사 문 앞에 부착된 수습기자 지원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15(일)까지 제출바랍니다.

이사장 신년사

새로운 의식으로 발전할 외대



인류는 오래 전부터 흐르는 세월을 분절하여 60초를 1분으로, 60분을 1시간으로 24시간을 하루로, 365일을 1년으로 계량화하는 지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2005년 12월 31일과 2006년 1월 1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하루가 흘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려면, 우리의 의식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의식의 변화 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발전시켜야 하는 책무와 함께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야 합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와 산업구조는 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통하여 책임 있고, 유능한 지도력을 배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학교는 교육 현장에서 도태되어 갈 것입니다.

새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학문에 열정을 가진 지성 있는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운 제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크게 공헌하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의 공헌을 확대해야 합니다. 법인 이사회로서는 총장과 체제 있는 협의를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 이사와 동문, 학교의 교수진이 참여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신임총장 체제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은 학교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학사운영계획을 새롭게 다듬고,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학교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세계로 나아가는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갑니다. 2006년은 학·내외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매진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각에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바랍니다.

이사장 이남주

신임 총장 취임사

국제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할 것



존경하는 외대 가족 여러분!

1954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개교한 우리 대학은 일찍이 외국어교육을 통한 특성화·세계화를 기치로 내건 건학이념에 걸맞게 이미 50여 년 전 그 때 우리나라의 사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안주하던 국가, 기업, 인간 등 모든 존재들에게 필연적으로 퇴보하고 사멸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과거 우리 외대가 국가와 사회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고 얼마나 훌륭한 졸업생들을 배출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향후 1세기를 대비하는 일대만의 비전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남겨진 학생들을 어떻게 유능한 세계적 인재로 양성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그 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유·무형의 자산을 총동원하고, 묻혀 있던 외대문화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학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건언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특성화된 대학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 대학교구체적인 대학발전의 마스터 플랜을 조속히 만들어 체계적인 대학의 정보화, 세계화, 특성화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이라는 3대 원칙에 모든 구성원들이 사임없이 대학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 행정체제에서 책임관리 중심의 대학경영체제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러한 목표와 전략이 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교직원 복지 향상과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대학, 열린대학, 열린 경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외대문화 창달과 재정기반의 확충

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금조성 전문화 체제와 학부 및 동문인들의 학교 재정 지원체제 구축에도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다섯째, 융인캠퍼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뜻을 모아 융인캠퍼스의 변혁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외대 가족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변화도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단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전략적 과제들이 많은 한 산처럼 가로 놓여 있는 실정에서 화합이 아발로 구성원들의 열정을 자발적으로 끌어내어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위기 속에 숨어있는 기회를 찾아내어 우리만이 자랑할 수 있는 외대 브랜드와 외대만의 독자적인 교육문화를 창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외대는 우리만의 외대가 아니라 온 국민이 사랑하는 외대요, 세계속의 외대라는 자긍심을 거듭 마음 속 깊이 새기면서 취임사에 가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8대 총장 박 철

안총장 퇴임사

외대의 저력을 믿는다



이뤄낸 것도, 외대 부속 외국어고등학교와 사이버외국어대학교를 설립한 것도, 그리고 최근 대학교육혁신회가 실시한 대학종합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것도 모두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총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제가 한 일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구성원들이 원하는 일들을 감지하고 외대라는 거대한 배가 파도에 침몰하지 않도록 엔진을 구동시켜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방향기를 안정되게 제어한 일뿐입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도 많았고 오히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힘을 최대한 하기 위해 방향기를 잡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신임 박 철 총장에 선장직을 넘겨드립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외대 구성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사를 드립니다.

외대 가족 여러분! 앞으로 자주 만납시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제7대 총장 안병만

먼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제7대 한국의 국어대학교 총장이라는 중책을 큰 과로없이 마치도록 도와주신 외대 구성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Unique & Best!」, 「해가 지지 않는 대학, 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세계와 함께 호흡하면서 지난 50년의 외대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외대가 겪은 시련을 극복하고 들어키면 제가 할 수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으로서만 가능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관신사 체제를 벗어나 정이사 체제를 구축하여 재단 정상화를

도약을 위한 출발점 대야



친애하는 재학생 및 신입생 여러분! 재학생들은 겨울방학을 보낼 때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신입생들은 앞으로 펼쳐질 대학 생활을 상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꿈꾸고 있겠지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지만, 새 학기를 시작하려는 현재의 시점에 새삼스럽게 학교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이번 학기는 정말 외대의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망치려다 지체할 이유가 우리에게선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교수들의 대표기구인 교수협의회도 우리 외대의 도약을 위해 참여할 할 수제를 묵묵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가정 '외대발

전방안 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 외대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vision을 마련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신임 총장의 공약사항을 점검할 '공약이행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바람직한 공약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지속적으로 우리 외대의 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재학생 및 신입생 여러분,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상상하면서 꿈꾸어왔던 일들을 새삼스럽게 실현에 옮기는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며, 멋진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모든 것들에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외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알차게 보내는 것은 외대 교육의 출발점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교수협의회 회장 김중철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 갖길



외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전 새해를 맞아 재학생과 외대인 가족 모두 건강강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외대가 설립된 지 52주년이 됩니다. 다른 명문 사립대학교에 비해 역사는 짧지만 그동안 외대가 이룩한 성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외대가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선배들의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외대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재학생인 여러분 역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외대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선배들의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50여년의 역사는 지금 재학생인 여러분들의 성장과 발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외대는 어느 한 구성원만의 것이 아닙니다. 재단, 교수, 교직원, 재학생, 동문 등 외대의 인연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학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외대의 주인인 것입니다. 다함께 학교 발전을 위해 내부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야 합니다.

우선 재단이 나서서 새로운 변화의 길을 제시하고 전 구성원들 화합, 단결할 수 있는 구성점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역량을 최대한 키울 수 있는 훌륭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교수님들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학문적 성과를 더욱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인재가 키워지는 법입니다.

재학생 여러분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대학생활이 자유만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 안에서 사회의 능력을 개발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동문들도 외대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외대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외대가 명문사학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총동문회장 양인모

민주운영정착에 힘쓸 것



안녕하십니까? 교정 곳곳이 신입생들의 싱그러운과 따뜻한 봄기운으로 넘쳐나는 3월입니다.

긴 방학 끝 개강을 맞이하는 교수님들과 직원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노동조합은 민주총장 선출제도 마련을 위한 사업을 여러 학생들과 함께 추진하였으나 교수만의 총장선출 결과를 이사회가 전격 승인함으로써 구성원 참여의 민주총장 선출제도는 아쉽게도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역시 외대발전을 위한 화두는 '대학민주주의의 정착' 일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해에 이어 민주적 대학운영의 정착을 위해 재단과 대학당국의 잘못된 대학운영에 대한 비판과 이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행정의 비효율적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직원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노동조합은 2006년 역점사업으로 직원들의 근로조건 및 지위향상 및 행정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 일관한 노사관계 정립이 대학발전의 기본이 되는 바, 이를 위한 충분한 노사간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또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행정권을 확충해낼 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췌록 2006년 한 해, 우리 대학의 교수, 직원, 학생 모두가 힘을 합쳐 상호 협력과 지지속에 외대발전에 즐겁게 매진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자부장 이철철

실천하는 외대인으로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각오를 다지고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약속 다짐을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서서히 그 목표를 잊곤합니다.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혹은 치명적인 실패를 하더라도 과거에 엄매하지 않으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대학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과학성취도 단과대 학생회도 총학생회도 우리 외대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늘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선 많은 어려움이 복잡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냉정하게 행동한다면 또 우리가 당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생각하고 실천 할 때 우리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새학기입니다. 많은 목표와 다짐이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thinking'이 아니라 'Doing'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외의 한 구절 중 공화불위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복에나 곤이라는 돌고기가 사는 데 뱀은 복을 물속에 있어서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할 수 없지만 대붕새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가면 만리만큼 맑을 정도로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 왕산 학우들도 왕산에 있을 때는 그 능력이 가히 짐작하기 어렵지만 일단 세계로 나아가면 그 능력을 크게 펼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융인캠퍼스 총학생회장 김준식

새로운 외대로 우뚝 서길



어서고 있습니다. 선배님들로부터 전해들은 우리 외대의 지난 50년은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학술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발전과 성장의 역사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픔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이는 보다 나은 외대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이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외대발전의 50년 역사를 준비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새로운 50년의 역사는 다시 우리 외대가 세계 속의 명문사학으로 발전하는 역사라고 요약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학, 가장 우수한 연구성과가 많이 배출되는 대학, 학생들에게 가장 적은 부담으로도 가장 많은 혜택을 물려주는 대학으로 우리 외대가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필요로 뒤늦은 새해 인사이지만 우리 외대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저희 대학원 학생들 역시 외대발전과 자기개발을 위해 더욱 학문연구에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총장 최정호

신임 총장 인터뷰

“개혁, 변화 그리고 도약이 필요한 때”

‘7+1 제도’ 심화로 실력 있는 인재 키울 것 구성원 모두 변화에 동참해 주길



박 철 총장 약력

- 경동고등학교 졸업
- 본고 스페인어과 졸업
-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교 문학박사
- 본고 스페인어과 교수
- 본고 홍보실장, 외국문학연구소장, 연구협력처장 등을 역임
- 교육인적자원부 BK21 세르반테스 연구팀장
-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장

당선 소감은

100년의 역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제8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기쁨에 앞서 자못 비장하기만 하다. 본교의 위대한 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겠다는 다짐을 하며, 그 마음을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추호의 변함도 없을 것이다. 자랑스러운 본교의 영광을 되찾고 우리 대학을 세계적인 일류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

(학사제도·해외교류 관련)

7+1 제도를 심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의 제도는 비교적 수월하게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재수강과 제2전공, 부전공 등 학사 제도들이 예전보다 부실하다.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26%, 제 2전공의 경우는 6.9%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미래엔 실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이 제도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메리트를 주면서 학생들을 점차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졸업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타 대학에 비해 영어권 교환학생은 현저히 비율이 낮고, 소수이과는 더욱 해외 체류의 기회가 필요하나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미국의 델라웨어 대학 외에는 영어권 국가의 자매결연이 거의 없다.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의 동·서부에

위치한 유명 대학과 교류를 맺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터놓겠다. 해외 학교와의 교류 협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에 계속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회판 1층에 교환학생을 위한 서비스 창구를 만들어 숙소를 연결하는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외협력처를 강화해 국제교류를 활성화 할 것이며 그 부처의 직원들도 영어를 구사하게끔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양배움터에서 100명씩 선발해 해외교류장학금을 지급하여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보조하겠다.

(운영 관련)

위부 CEO를 두겠다고 했는데, 현 학교 상황에서 구성원 CEO의 상은?

교내 인사 중에서 재부에 밝으신 분을 위촉할 생각이다. 물론 외부에 능력 있는 CEO도 많고 외대 출신의 동문 CEO도 많지만, 재정상 일단 교내 인사로 모실 계획이다. 점차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유능한 외부 CEO를 모시겠다.

행정 효율화와 교직원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을 밝혔는데?

우리 학교 직원의 수는 총 531명이고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그렇다고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재배치를 통해 일이 많은 부처, 예를 들면 새로 생기는 수의사업 운영본부나 평생교육원, 1-의대, 영어마을 등에는 인력을 더 투입하고 일이 적은 부서는 줄일 것이다. 또한 직원들의 재교육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용인배움터 관련)

용인배움터의 독립 체제를 언급했다. 실질적인 분리는 언제부터이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실질적인 분리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순환교수제부터 서서히 없애고자 한다. 또한 직제개편이 되면 용인배움터에 산하연계 부총장을 한 분 더 모시려고 한다. 용인사나 연구기관을 방면해 프로젝트를 유치를 하고, 용인시장을 만나 경진철을 유치하는 등 용인배움터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입학관리처와 기획조정처의 분리를 시행할 것이며 교수도 따로 뭉개 될 것이다.

용인배움터의 외과대학원 신설을 언급했다. 실현 가능성은?

외과대학이 없는 대학은 발전에 한계가 많다. 더구나 용인시의 인구는 앞으로 2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병원을 비롯한 복지시설이 필요한데, 우리 학교가 만들지 않으면 용인에 위치한 강남대, 명지대와 같은 대학들이 먼저 제안을 할 것이다. 평범한 종합병원이나 아니라 특수병원, 예를 들면 외국인들을 위한 병원이나 치매 전문 병원 등을 특화, 발전시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서울에서는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으나 용인에서는 의학을 준비하지는 못한다. 우선은 실질적인 투자보다는 투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고자 한다.

이공계 발전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교무처장과 행정처장을 이공계 교수로 임명해 스스로 이공계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겠다. 그리고 독립적인 운영을 통해 자율권을 많이 줄 것이다. 또한 이공계는 프로젝트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학교 발전을 이끌어 갈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로스쿨)

로스쿨 유지 계획에 대해 알려달라

올해 대외부총장으로 취임한 이정희 법과대 교수를 중심으로 로스쿨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준비하겠다. 고시반에 대한 지원과 멘토링 제도를 실시해 우수한 학생들을 관리하고 사회에서의 학교 평판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반드시 로스쿨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학내 구성원들에게 한 마디

우리 대학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개혁과 변화 그리고 도약을 해야 할 때다. 1%의 변화가 99%를 발전시킨다는 신념으로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모두가 각자의 이기주의를 떨쳐버리고 함께 동참하여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임선진 기자

신임총장에게 바란다

화합의 문화 구현해 주길



총장님께서는 본교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왕성한 추진력을 인정받아 있기 때문에 본교의 실로 중요한 시점에 총장을 맡으시길 믿고 있겠습니다. 총장님의 열정과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으나 다만 그것이

올바른 방향과 적절한 방식을 채택할 때 목표하는 수준의 학교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내구성원들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지혜와 능력을 모을 수 있도록 능력보육 인사와 민주적 의사결정시스템, 그리고 화합의 문화를 구

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둘째, 대외관계와 재정확충 노력에 있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CEO총장의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본교 고유의 특성을 훼손한 없이 학생들의 현실적 이해를 보장할 수 있는 실용적 학풍의 교육과 학내 교육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교육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학생의 학습과 교강사의 연구·강의에 가능한 한 부담을 주지 않는 교육중심의 행정체계를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교수협의회가 총장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끈소리에도 귀를 열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수협의회 총무 김용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길



총장취임식 준비로 학교가 들쭉이 있다. 무엇보다 총장은 대학정치의 수반이다. 때문에 우리 행정직원들에게 새총장 취임은 응당 기쁘고 축하해야 할 일이나, 현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사회는 총장선임 직후, 총장내정자는 노조사부실을 방문하여 대총장

고, 43%에 이르는 교수 행정보직들을 더 늘리겠다고 나서다가 하면, 학생등록금 인상에 11.4%의 절반을 교수복지와 임금에 쏟아 붓는 극단적으로 편중된 예산편성으로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신임총장이 교수만의 총장이어서는 학교발전은 잘 건너갈 것이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교수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직원의 행정권이 균형 있게 발전해가는 민주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교수·직원, 동문·비동문의 이분법적 갈등구도를 극복하고 모두 힘을 합쳐 외대발전에 매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단체협약 위반, 지원행정권을 무시한 부당인사는 지금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노조지부장 이정철

‘실천하는’ 총장을 기대한다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총장님을 바랍니다.

다고 생각하시는게 아니라 사고의 전향으로 고

같은 총장님을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천하시는 총장님을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머릿속에 책속에 머무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총장님의 좋은 계획도, 생각도, 실천하고 실현될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바람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하시는 총장님을 바랍니다.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김준식

대학원 발전 위한 적극적 지원 기대



총장은 외대 전체의 대표인만큼 외대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구성원들의 협력과 화합을 통해 외대 발전을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총장선출 과정을 둘러싸고 구성원들 사이에 많은 마찰과 갈등이 있었고, 결국 직원과 학생은 배제된 채 교수님들만의 투표에 의해 신임총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한계는 총장님의 임기 동안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핸디캡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학원총학생회장 이세영

신임 총장님~ 부탁드립니다!

졸업학점을 낮추주고 제2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인정 해주세요.

- 통분병역군 05 김성영
법대 건물 중공이 차지 없이 이루어지고 로스쿨이 빨리 유치되었으면 좋겠어요.

- 법학과 05 김정수
회화수업에서의 상대평가제도, 교포에게 유리합니다. 시정해 주세요.

- 스페인어과 05 한서정
각 건물 시설확충 및 리모델링해 주세요.

- 영문학과 03 김성미
우리 학교도 동문들을 유치해서 재정을 확충 했으면 좋겠어요.

- 이과학과 04 김혜민
도서관 공간기회 및 주위환경 좀 개선시켜 주세요.

- 영문학과 04 이영정
9,10교시 너무 많아요. 효율적인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교수 인원 및 강의실 늘려주세요.

- 경제학과 01 배문주
학교의 대외적 홍보에 힘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언론에서는 외대의 이미지가 타대에 비해 뒤처지는 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주세요.

- 법학과 03
후보에 오르면서 내놓은 공약들을 구체화하고 가시적으로 시행에 옮겨감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 법학과 02
실용적이고 도움이 될 만한 과목을 늘려 주고 실력 있는 교수진 선의를 부탁드립니다.

- 중국어과05 정혜림
한번에 인당할이 11.4%나 댈단 말입니다! 30만원 인당 너무 비싸요.

- 일본어과 04 김지범
기숙사 건물이 빨리 지어져서 졸업하기 전에 기숙사에 살아보고 싶어요.

- 영어과 05 이영진

등록금 관련 움직임 간접적으로 진행

양배움터 총학생회, 사이버 매체 이용
대학원 총학생회, 대외적 활동 눈에 띄어

개강이 다가오면서 양배움터에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 동안 양배움터 학생회는 11.4%의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직접적인 움직임보다는 주로 사이버 매체를 통해 등록금조정위원회 회의록이나 예산안에서의 수입·지출 부분을 게재하는 간접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배움터는 총학생회와 단과대학(단대)학생회에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과 수익사업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총학

생회와 단대학생회 간 이견이 있어 등록금 투쟁을 각자 진행했던 작년과 같은 상황을 피해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배움터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부담하다는 입장이 담긴 플래카드를 서양어대와 동양어대, 사회대, 법대가 걸면서 몇몇 단대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에 서양어대 학생회장 신영섭(포르투갈어 03)군은 “등록금인상 반대 플래카드는 총학생회와 모든 단대가 걸기로 합의했던 것”이라며 “새내기세로배움터 준비와 같은 바쁜 일정이 있었지만 플래카드를 걸지 않고 있는 모습은 등록금 인상 반대에 적극성이 부족함

을 보여준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용인배움터는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김준식(아시아아프리카·인도어 99)군은 “모든 학생들의 실천과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우들에게 등록금 인상의 부당성에 대해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효율적인 등록금 투쟁을 위해 모든 단대 학생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학원총학생회는 지난 22일(수) 고려대, 연세대를 포함한 총 7개 대학원의 총학생회들과 함께 노무

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에게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대학원총학생회장 이세영(정치외교학과 석사2학기)군은 “등록금 문제의 해결이 학내에서도 문제지만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활동에 참가하게 됐다”며 “학내로는 대학원생들에게 등록금에 대한 설문조사 등으로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노력중이다”라고 밝혔다.

손보율 · 채승아 기자

수강신청 잘 하셨어요?

서버장애, 늦은 강의 안내 책자 배포로 불편했던 수강신청

06년도 1학기 수강신청이 지난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버장애와 강의 안내 책자의 늦은 배포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16일(목)에는 서버장애로 인해 사이버가 열리지 않아 일부 학생의 수강신청에 지장을 줬다. 이 같은 서버장애에 대해 배태수 학사지원과 담당은 “전산실이 지난 15일(수) 수강신청이 끝난 후 다음 날 서버의 과부하가 될 것을 염려해 전산실이 잠시 사이트를 점검했는데, 그것이 수강신청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의 수강신청 편의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강의 안내 책자가 수강신청의 3일 전인 10일(금)에 배포되면서 학생들의 책자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학사지원과에서는 “각 과에 지난 해 11월까지 강의 목록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 달 이상 지난 후에야 강의 목록을 넘겨져 취합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변경되는 과목의 수가 많아 미리 강의 안내 책자를 만들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배움터는 강의 안내 책자를 받아보기 힘든 지방 학

생들을 위해 지난 수강신청부터 관련 책자를 PDF파일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수강신청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은 강의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과목과 사일이 지난 강의 계획서가 올라와 있어 학생들이 강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다. 이는 “교수들이 강의에 배정되지 않았거나 강의 계획서를 쓰지 못 동일한 수업을 강의할 경우 예전 강의계획서가 참고로 주어지는데 이를 그대로 옮겨 올리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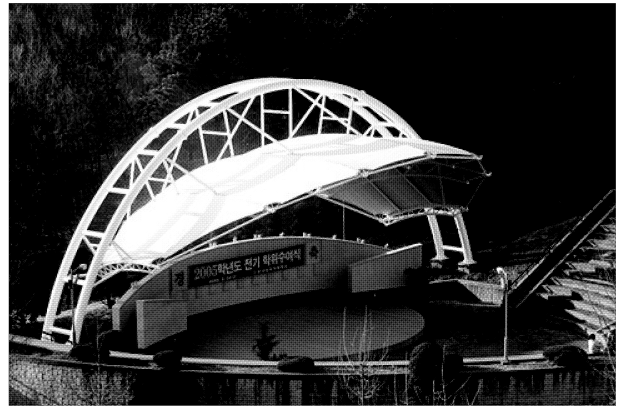
채승아 기자

용인배움터 학생회 회칙 개정

용인배움터 학생회의 회칙개정이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칙 개정은 실제 학생회에서 사용되는 회칙과 문서상의 회칙이 다른 부분에 대한 수정, 쓰지 않는 용어에 대한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 2일(목)까지 진행된 개정사항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불신임에 관한 개정 △총학생회장이 독립된 단위임을 인정하도록 개정 △명칭변경: 서어름 → 동아리 △총학생회와 관련한 사항 삭제 △총학생회 회원 규정 ·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 · 휴학하지 아니한 자 · 등록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 등이다.

이번 회칙 개정에 대해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김준식(아시아아프리카·인도어 99)군은 “회칙개정은 계속해서 현실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며 “회칙을 비롯한 학내운영위원회(학운위), 중운위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운위에서 개정이 결정된 회칙은 학운위에서 인준을 받고, 정기총회에서 학우들에게 공포된다.

채승아 기자



완공된 노선구장

용인배움터 노선구장 1단계 개축공사가 3개월의 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2단계 공사는 오는 학정말 예산 배정 이후 결정된다.

지하철 노선변경, 불편해진 통학길

지난 해 12월 16일부터 덕소-용산간 중앙선이 신설되면서 용산-성북노선의 운영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용산-성북 노선을 이용하던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용산-성북간의 노선을 이용해 통학했던 김정아(서양·스칸디나비아어 05) 양은 “회기에서 갈아타기 위해 시간을 소모하는 것 보다 지하 청량리행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기존보다 약 20분 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돼 불편하다”는 게 김 양의 설명이다. 특히 용산-성북 노선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 이에 따른 불편함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 측은 청량리와 회기 구간에서 발생하던 교차지점에서의 운행속도 감소에 상당부분 해소와 운행의 지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노선 신설로 인한 이점이라고 전했다. 또한 남양주나 미곡지역의 승객들과 인천행 지하철 운행 횟수의 증가로 종로 3가 쪽으로 이동하는 승객들이 편리해진 상황을 전적으로 더불어 현재 우리학교 학생들이 불편에 대한 해소방법으로 출·퇴근 시간에 용산 덕소 행의 운행을 늘리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논의 및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플랫폼 변경할 것”과 “구간 동시운영”이라는 방안을 한국철도공사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측은 회기역의 구조상 플랫폼을 변경할 경우 다른 플랫폼이 활용되지 않아 산 남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구간 동시운영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다는데 학교당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부총장 및 교원인사발령 받아

지난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3차례에 걸쳐 부총장 3인을 비롯한 134명 교원들의 보직인사 발령이 있었다. 특히 이번 인사발령은 각 부처 및 학장을 대상으로 대부분 변경됐는데 이는 새 총장이 취임하며 나타난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배움터 부총장으로는 지재은 교수(중국어과), 용인배움터 부총장은 김성기 교수(부마니아어과), 대외부총장으로는 이장희 교수(법학과)가 임명됐다. 서울배움터 부총장으로 임명된 지재은 교수는 “신임총장님께서 갖고 있는 계획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보좌하겠다”며 “교수·학생·직원 모두가 신나게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용인배움터 부총장으로 임명된 김성기 교수는 “용인 캠퍼스와 서울캠퍼스의 행정분리와 행정의 투명화를 이루겠다”며 각요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대외부총장으로 임명된 이장희 교수는 “대외부총장으로서 맡고 있는 연구, 대외협력과 함께 입학과 홍보의 부문을 잘 관리해 외대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전했다.

손보율 기자



평생교육원, 최우수 부설교육기관상 수상

우리학교 평생교육원이 지난 8일(월) 헤럴드미디어의 주관으로 열린 ‘2006 대한민국 외국어교육대상’ 시상식에서 고려대와 함께 최우수 부설교육기관상을 수상했다. “외국어교육대상”의 시상처지에 대해 헤럴드미디어 관계자 조석우씨는 “외국어 교육 기관이 아직, 질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 소비자가 검

증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상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우리학교 평생교육원이 유명 대학과의 교류가 많고 네트워크 등 인공의 구실이 잘 되어 있으며, 일반인과 교류가 잘되고 있는 점을 수상 이유로 꼽았다. 또한 그 동안의 교육성과와 함께 ‘열일없이 변화하는 외국어 교육의 특성에 맞게 항상 새로운 학습법으로 교육하며, 상대적 관심이 덜한 국가의 언어 및 지역

학까지도 연구하고 관련 교육자료를 축적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에 대해 김윤진교수(평생교육원 원장, 아프리카어)는 “이번 헤럴드미디어의 평가는 어학, 지역학의 메카인 대외로서 당연해서도 기쁜 일”이라며 “앞으로 다른 대학 기관의 언어 프로그램보다 차별화되고 심화된 정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아 기자

교원인사발령 *				교원인사발령 *				교원인사발령 *				교원인사발령 *			
직위	성명	발령사항		직위	성명	발령사항		직위	성명	발령사항		직위	성명	발령사항	
교수 지재은	임)서울캠퍼스 부총장			교수 변해철	임)법과대학장			교수 최영	임)사이버교육과대학과 학장			교수 정대성	임)아시아·아프리카대학 아프리카어과장		
교수 강석영	면)서울캠퍼스 부총장			교수 최원진	면)법과대학장			교수 김충현	면)사이버교육과대학과 학장			교수 정동규	면)아시아·아프리카대학 아프리카어과장		
교수 이인희	임)대외부총장			교수 조장민	임)상경대학장			교수 홍준기	임)서양어대학 불어과장			교수 전준근	면)경상대학 국제경영학과장		
교수 정일용	면)대외부총장			교수 이종욱	면)상경대학장			교수 이재은	면)서양어대학 불어과장			교수 김문현	면)경상대학 국제경영학과장		
교수 이명호	임)대학원장			교수 김태정	임)교육대학원장			교수 정은수	임)서양어대학 독일어과장			교수 김승훈	임)자연과학대학 수학전공 주임교수		
교수 류성준	면)대학원장			교수 김홍진	면)교육대학원장			교수 임우영	면)서양어대학 독일어과장			교수 한종민	면)자연과학대학 수학전공 주임교수		
교수 이성하	임)외국어종합연구센터원장 겸·외국어수평기원장			교수 박종현	임)통역번역대학원장			교수 한성철	면)서양어대학 이탈리아어과장			교수 박갑성	임)자연과학대학 환경학전공 주임교수		
교수 오봉근	면)외국어종합연구센터원장 겸·외국어수평기원장			교수 이두선	면)통역번역대학원장			교수 김시흥	면)서양어대학 이탈리아어과장			교수 조재창	면)자연과학대학 환경학전공 주임교수		
교수 임우영	면)기획조정처장			교수 조현수	임)국제지역대학원장			교수 조이환	임)서양어대학 포르투갈(브라질)어과장			교수 조기성	임)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전공 주임교수		
교수 조남신	면)기획조정처장			교수 기현수	면)국제지역대학원장			교수 이승훈	면)서양어대학 포르투갈(브라질)어과장			교수 한현광	면)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전공 주임교수		
교수 정경현	면)서울캠퍼스 교수처장			교수 양민진	임)의대학보편진단 겸 주간			교수 박용구	임)동양어대학 일본어과장			교수 허현준	임)자연과학대학 생명학전공 주임교수		
교수 강익수	면)서울캠퍼스 교수처장			교수 홍 용	면)의대학보편진단 겸 주간			교수 문명재	면)동양어대학 일본어과장			교수 김용애	면)자연과학대학 생명학전공 주임교수		
교수 소병국	면)서울캠퍼스 총무처장			교수 김성기	임)용인캠퍼스 부총장			교수 김대성	임)동양어대학 터어키어과장			교수 주정성	임)정보산업과학대학 전자공학전공 주임		
교수 김진수	면)서울캠퍼스 총무처장			교수 임원호	면)용인캠퍼스 부총장			교수 연규식	면)동양어대학 터어키어과장			교수 김동식	면)정보산업과학대학 전자공학전공 주임		
교수 권석균	임)연구·대외협력처장			교수 한진호	임)산학협력단장			교수 김우조	임)동양어대학 인도어과장			교수 한희일	임)이공계지주전공학부장		
교수 김민택	면)연구·대외협력처장			교수 한원근	면)산학협력단장			교수 서형정	면)동양어대학 인도어과장			교수 박종찬	면)이공계지주전공학부장		
교수 신영환	임)입학처장			교수 김윤진	임)외국학종합연구센터원장 겸 평생교육처장			교수 김성환	임)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부장			교수 정대영	임)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명숙	면)입학처장			교수 양승훈	면)외국학종합연구센터원장 겸 평생교육처장			교수 김문식	면)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부장			교수 손동호	면)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주임교수		
교수 최희일	임)정보지원처장 겸·시정각교육원장 겸·서울캠퍼스 교육방송주간 겸·전자계산소장 겸·서울캠퍼스 전자계산소 교육방송주간 겸·전자계산소장 겸·서울캠퍼스 전자계산소 담당실장			교수 이영태	임)용인캠퍼스 교수처장			교수 이 청	임)법과대학 법학과장			교수 현종익	면)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희동	면)정보지원처장 겸·시정각교육원장 겸·서울캠퍼스 교육방송주간 겸·전자계산소장 겸·서울캠퍼스 전자계산소 담당실장			교수 이영태	면)용인캠퍼스 교수처장			교수 이시훈	면)법과대학 법학과장			교수 이재영	면)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홍준	임)대학원 교학처장			교수 임원호	임)용인캠퍼스 학생지원처장서리			교수 조남신	임)상경대학 경영학부장			교수 정은수	면)대학원 독어독문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삼영	면)대학원 교학처장			교수 김성환	면)용인캠퍼스 학생지원처장			교수 권석균	면)상경대학 경영학부장			교수 임우영	면)대학원 독어독문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문식	임)정보실장			교수 박종찬	임)용인캠퍼스 총무처장			교수 김경성	면)서울캠퍼대학 영어학전공주임교수			교수 조이환	면)대학원 포어문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유경	면)정보실장			교수 허준진	면)용인캠퍼스 총무처장			교수 김성강	면)서울캠퍼대학 영어학전공주임교수			교수 이승훈	면)대학원 포어문학과 주임교수		
교수 최해철	면)서울캠퍼스 도서관장			교수 이숙덕	임)서울캠퍼대학장			교수 리영균	면)서울캠퍼대학 독일어과장			교수 이문수	면)대학원 동유럽어문학과 주임교수		
교수 지재은	면)서울캠퍼스 도서관장			교수 유석영	면)서울캠퍼대학장			교수 박기범	면)서울캠퍼대학 독일어과장			교수 김동식	면)대학원 동유럽어문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광욱	임)영어대학장			교수 김규진	임)동유럽대학장			교수 조현광	면)서울캠퍼대학 이탈리아어과장			교수 정대성	면)대학원 아프리카어문학과 주임교수		
교수 정 국	면)영어대학장			교수 김경태	면)동유럽대학장			교수 이성일	면)서울캠퍼대학 이탈리아어과장			교수 정종규	면)대학원 아프리카어문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광욱	임)영어대학장			교수 임영애	임)아시아·아프리카대학장			교수 박수영	임)동유럽대학학 학기어과장			교수 이장영	면)대학원 TESOL학과 주임교수		
교수 정 국	면)영어대학장			교수 임원호	면)아시아·아프리카대학장			교수 한영민	면)동유럽대학학 학기어과장			교수 이성희	면)대학원 TESOL학과 주임교수		
교수 이시훈	임)서양어대학장			교수 김진호	임)경상대학장			교수 정영필	임)아시아·아프리카대학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장			교수 허 용	면)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주임교수		
교수 한국현	면)서양어대학장			교수 김경태	면)경상대학장			교수 안영호	면)아시아·아프리카대학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장			교수 김명필	면)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주임교수		
교수 안영호	임)동양어대학장			교수 정일영	임)정보산업과학대학장			교수 정영호	면)아시아·아프리카대학학 태국어과			교수 이명환	면)대학원 정보기공학과 주임교수		
교수 홍순남	면)동양어대학장			교수 김자서	면)정보산업과학대학장			교수 윤정현	면)아시아·아프리카대학학 태국어과			교수 여호규	면)대학원 정보기공학과 주임교수		

양배움터 새터 열려

양배움터 새터가 새로배움터(새터)가 지난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진행됐다.

서울배움터 새터는 나산 프레이 콘도에서 열렸다. 첫째 날 저녁과 둘째 날 오전에 걸쳐 열린 각 단과대학 시간에는 각 학과 공원과 과회장들의 읍을 이어왔으며 그 외의 시간에는 각 학과별 시간이 마련됐다. 둘째 날 저녁에는 속초 시내 체육관에서 중앙 공연이 열렸다. 중앙공연은 동아리들의 공연과 학생회장단들의 읍을, 그리고 초대가수 다이나믹 듀오의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중앙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곳곳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운동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행사장 입구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구호를 외

쳤다. 또한 중앙행사 중 신입 학생들의 발단이 시작되자 사대대 학생들이 현수막과 함께 등록금 인상 반대를 외쳤으며 서양어대 학생들을 비롯해 곳곳에서 동참했다.

새터에 참여했던 최지용(서양·스칸디나비아어 06)군은 "실력 있는 동아리들의 공연과 중앙행사 때 진행했던 등록금 투쟁이 인상적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중앙공연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은 아쉬웠다"고 말했다.

용인배움터 새터는 속초 금호콘도에서 열린 공연이 열렸다. 초대가수 리쌍의 공연으로 시작된 첫째 날 중앙공연은 학회 및 동아리들의 공연과 함께 학생회장단들의 읍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동아리 협회의 주관으로 양쪽 숙소에서 동아

리 문화학교가 열렸으며 각 단과대별 시간을 통한 학회 또는 동아리들의 초청 공연이 진행됐다.

새터 기획국장 이정민(아시아프리카·일본어 99)군은 "새터기간 동안 질서가 잘 지켜져 사고나 손실이 거의 없었다"며 "중앙공연과 단과대공연도 잘 진행된 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고질적인 문제인 출발 시간 지연은 여전했다. 이에 대해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김준식(아시아프리카·인도어 99)군은 "많은 인원이 읍이다 보니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 재학생 참가자 명단의 취합이 늦어지면서 출발시간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김형민·박수진 기자

신임·퇴임 교수 명단

<퇴임>



김만기(행정학과)

<퇴임>



김정기(행정정보학부)

<퇴임>



김형필(한국어교육과)

<퇴임>



남성우(한국어교육과)

<퇴임>



안병민(행정학과)

<퇴임>



문석열(스페인학과)

<퇴임>



이인연(독일학과)

<신임>



권대형(행정학과)

<신임>



아유나(언론정보학부)

<신임>



임희(법학과)

<신임>



박지혜(경영학부)

<신임>



이운(교육대학원)

<신임>



김상수(영어학부)

<신임>



신정아(불어과)

<신임>



김문수(산업정보시스템)

<신임>



김은정(법학과)



▲ 세계각국언어로 쓰여진 '반값운동'



▲ 초대가수 리쌍의 무대



▲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의 등록금인상 반대 현수막



▲ '새내기 준비반'의 발발한 무대



▲ 총장 발언에 대항한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현수막



▲ Hufs 음원단과 함께 음원들



▲ 중앙공연-음원대, 노래대 연합 공연



▲ 중앙음원대 '한일'의 공연

양배움터 입학식 오늘 열려

27일(월)로 예정됐던 06년도 입학식이 오는 3월 2일(목) 양배움터에서 각각 진행된다. 서울배움터는 오전 11시부터, 용인배움터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양 배움터 노천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06년도 신입생 인원은 총 3766명(2006. 2. 21 현재)으로 서울배움터는 1,880명, 용인배움터는 1,886명이다. 서울배움터 입학식은 스개식사 스개민의 스 입학 허가 선언 스입신상 선서 스개 교배지 수여식 스총장발음 스이장 치사 스등분화장 치사 스정학증서수

여 스교가제창 스페식사 스으로 진행 된다. 용인배움터 식순 역시 학교배지 수여식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한편 신입생 수강신청은 입학식 당일 수강신청교육 후에 이뤄진다. 서울배움터 신입생들은 오후 1시부터 각 단과대학 별로 수강신청교육을 받은 후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수강신청을 진행한다. 또한 용인배움터 신입생들은 입학식에 참여하기 전인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수강신청 교육을 받은 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강신청을 할 예정이다.

학부·대학원 학칙 변경

올해 1학기부터 학부와 대학원에 변경된 학칙이 적용된다. 학부 학칙변경은 휴학과 관련된 부분이 변경됐다. 본래 휴학 관련 학칙에서는 휴학기간 3년 중 연속으로 휴학 가능한 기간이 2년, 횟수는 3회로 제한 돼 있었다. 이를 연속으로 3년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횟수는 6회로 늘렸다. 이번 개정은 학생들의 취업 및 학업배양에 충분한 기회를 주고자 이뤄졌다.

'자랑스런 외대인상' 시상

'2006 자랑스런 외대인상' 시상식이 지난 9일(목) 총동문회의 주관으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외대인 신년 축하모임'과 함께 개최됐다. '자랑스런 외대인상'은 김충용(영어 61)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강주언(서반어 68) 아시아아항공대표이사, 이봉화(서반어 79) 서울특별시 감사관이 수상했다. 특별 공로상으로는 이덕호(독일어 58)서강대 명예교수와 최영우(서반어 79) 삼미 유한공사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손보을 기자

박수진 기자

교원인사발령장				교원인사발령장				교원인사발령장				교원인사발령장			
직위	성명	발령사항		직위	성명	발령사항		직위	성명	발령사항		직위	성명	발령사항	
교수	이호규	임)대학원 한국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민정	임)교육대학원 체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신형욱	면)교과과정 상임연구위원		교수	이재학	임)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남승우	임)대학원 한국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체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재남	임)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성철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김태정	임)대학원 일본학과 주임교수		교수	하현준	임)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송정남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박용우	임)대학원 일본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김정현	임)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김준식	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김준식	면)대학원 수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한승민	면)대학원 수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하현준	임)대학원 화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김태정	면)대학원 화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김태정	면)대학원 화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박강성	임)대학원 환경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조재창	면)대학원 환경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조기성	임)대학원 생명공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한현정	면)대학원 생명공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손기학	임)대학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박성진	면)대학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조정석	임)대학원 전자정보공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이준	면)대학원 전자정보공학과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윤종현	임)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권철근	면)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권철근	면)교육대학원 러시아어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최상훈	면)교육대학원 러시아어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이강국	임)교육대학원 서반어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정혜정	면)교육대학원 서반어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최호성	임)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최호성	면)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윤성우	임)교육대학원 물리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김병환	면)교육대학원 물리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손기학	임)교육대학원 전자계산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김경국	면)교육대학원 전자계산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최재창	임)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박홍수	면)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윤성우	임)교육대학원 철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교수	김병환	면)교육대학원 철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태정	면)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주임교수		교수	김우경	면)교수회의로 기록교수		교수	김종현	면)신학대학원서신연구소장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대외부총장 인터뷰

“교육의 공공성에 초점 맞춰야”



최근 사회 전반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의 및 방향에 대해 우리 학교 대외부총장인 이창희 교수의 의견을 들어왔다. 이창희 교수는 현재 교육부 산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립학교법은 1963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어, 사립학교의 비리와 부정을 규제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1990년,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개정되면서 오히려 사학의 비리와 부정에 있어 편법적으로 악용되었다. 이에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

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15년이 지난 지금 더더욱 그 결실을 조금이나마 얻게 된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의 공공적인 목적은 대학의 투명성과 비리 근절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건강한 교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논의가 중요하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논의의 방향은?

사립학교법의 총칙(제1조)에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감안함으로써’라는 구절이 있다. 지금까지의 사립학교법은 위의 구절 중 교육 기관의 ‘자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동안 너무 소홀히 하고 있었던 교육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개방형 이사’나 ‘대학평의회’ 문제가 가장 쟁점이 아닌가 싶다. 개방형 이사는 현재 외대를 포함한 14개 학교가 도입한 제도인데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건학이념을 해친다는 이유로, 중

교계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해친다는 이유로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대학평의회 부분은 있어서는 ‘학생을 평의회의 구성원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학생대표’라는 조항에서 ‘대표’라는 말을 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학생이 뽑은 대표’가 아닌 ‘총장이나 이사회가 뽑은 임의의 학생’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와 반발을 표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단체들은 현 개정안을 색깔론으로 몰고 있다. 그들에게 개정사항의 어느 조항이 이념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공개 질의를 하고 싶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의 외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에까지 적용할까요?

그 동안 외대는 일사아사제와 대학평의회의 운영이 다른 사학에 비해 모범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앞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많은 대학들은 외대를 모델로 하여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태형 기자 comorebi@hufs.ac.kr

고현호(사회·행정 11)군 인터뷰

“민주적 학교운영, 대표기구 법제화가 우선”

“사립학교개정법은 사학의 민주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법제”라고 말하는 고현호(사회·행정 01)군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우리 학교의 변화를 전망했다. 우리 학교가 타교에 비해 대학평의회와 정이사제에 잘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학생회와 교수회가 법제화되면 좀 더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하리라는 것이다.

고 군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사학의 투명성보다는 교육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공공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립학교법의 법제 중에 많은 모순점을 찾을 수 있는데, 교육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금은 민주적 개정을 위한 시작 단계일 뿐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일(사범·영어교육 99)군 인터뷰

“3주체의 참여로 참교육 실현돼야”

앞으로 교사의 길을 걸어갈 이준일(사범·영어교육 99)군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대다수의 사립대생들은 임금고시를 통해 국·공립학교의 교육공무원이 되어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학 역시 공공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사의 꿈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공간”이라며 “비리 재단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인간다운 교육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군은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적극 찬성한다. 한편에서 재개정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기득권 수구세력의 정치 공세일 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그들은 사립학교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 평의회 설치에 꼭 마련돼야 할 법안이 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립학교는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이고 운영비의 대부분을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계속해서 옳은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립학교 개정을 시작으로 인간다운 교육,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민주적인 교육 실현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3주체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오재훈(가사) higr1777@hufs.ac.kr

개정사립학교법시행령토론회 스케치

대학평의회 신설, 민주적 대학운영의 밑거름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과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사립학교법시행령 토론회가 지난 21일(화) 서울대 의대 합촌관에서 열렸다. ‘개정사립학교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는 박기용 교수노조 학문정책위원장의 발제 이후 학계대표, 대학노조대표, 학생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대학평의회의 구성에 대해 발제자 박기용 교수노조 학문정책위원장은 겸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성별대교수)은 “대학 3주체(교수, 학생, 직원) 대표뿐만 아니라 시간강사와 대학원생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구성안에 대해서는 “대학 3주체 중 어느 한 쪽의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막기 위해 각 구성원의 대표수가 평의원 정수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철세 사교련 교규위원장(재계대교수)은 “대학 3주체가 서로 협의하여 풀어가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고, 류성영 대학노조 사무처장(대학노조 외대지구 부지부장)은 “대학 3주체 이외에도 학교가 소속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대표도 구성

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각 주체의 비율은 3(교수) : 3(직원) : 2(학생) : 2(지역대표 및 총장)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대학 3주체를 기본으로 평의회를 구성하고 각 구성원의 대표수가 평의원 정수의 1/3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평의회의 구성에 있어 학생들의 권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학평의회의 기능에 대해 박기용 교수는 “이사장, 총장 선출 관련 사항 등 대학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학평의회의 법적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를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철세 교수는 “학교 교육,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심의권을 확보한 뒤, 절차적으로 의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류성영 사무처장은 박기용 교수의 의견에 일정부분 동의하면서도 “이사장, 총장 선출 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현 사립대학에서 모든 대학구성원들의 총장선거 참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바, 이 문제는 향후의 법제정 과정에서 남겨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총학생회장은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그 위상을 높여 의결기구로서의 역할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대학평의회의 기능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사의 선출 자격기준’ 면에 있어서는 연행시행령에서 개방형 이사의 조건인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고 상세한 자격요건을 정관(법인의 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박기용 교수는 “이사 자격요건이 너무 과도하다”며 “시행령에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정재훈 총학생회장은 “시행령에서 이렇게까지 규제를 줄 경우 실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에 대해 김보영 교육인적자원부 사립학교법 시행 대책 행정팀 팀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여러 단계의 목소리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오는 3월 7일에는 사회 각 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주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고, 이후 여론을 잘 수렴하여 5월 말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최종 공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태형 기자 comorebi@hufs.ac.kr



△ 지난 21일(화)에 열린 사립학교법시행령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다

모 집 공 고

1. 모집대상

- * 한국외대 2학년 (1학기) 재학생(남)
- (5년제 학과, 복수전공 등의 인원은 3학년)
- * 입학생 전년도까지 만 20세이상 27세 이하
- (‘81. 3. 1 ~ ‘89. 2. 28생까지 가능)

2. 지원 및 접수기간

- * '06. 3. 10 ~ 4. 25

3. 지원서류

- * 지원서(학교 양식) / 성적 증명서 (원본) 각 1부
- *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 대학 1학년 학위를 성적 증명서 1부
- (3학년은 2학년까지 성적증명서)
- * 신원진술서 A양식 3부,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각 4부
- * 천연색 사진 (4×5cm 필로상판식) 5매
- * 가산점 증명서류 1부(원본)

4. 제책 검정 / 면접평가 / 신체검사 일정

- * '06. 4. 26 ~ 5. 24(상세일정은 추후 통보)

5. 접수장소(학군에 구비서류제출과 인터넷 접수를 병행)

- * 학군단 : 02) 2173-2565
- * 인터넷 : www.army.mil.kr : 8083/officer

제 119 학생군사교육단

2006년도 FLEX 시험 공지

▶ 시험일정

회차	접수기간	시험일자	발표일자	비고
		통기/일기	말하기/쓰기	
1회	2006.2.13~2.22	3.19(일)	4.11(화)	4.19(수)
2회	2006.5.15~5.24	6.18(일)	7.11(화)	7.18(화)
3회	2006.7.31~8.9	9.3(일)	9.26(화)	10.3(화)
4회	2006.10.16~10.25	11.19(일)	12.12(화)	12.19(화)

▶ 시험일시

- * 응시자격 : 재한인원
- * 접수방법 : www.gpasson.co.kr 혹은 대한상공회의소 방문접수
- * 응시료 : 통기+일기(30,000원), 말하기(50,000원), 쓰기(40,000원)
- (출입인원관리자는 소속대학과대학교 교육학과 문의바람)

▶ 시험안내

- * 시험내용 : 기초언어능력, 생활언어능력, 한어수능능력, 실무언어능력
- * 평가대상지역 :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 * 시행지역 : 추후공지

▶ FLEX 평가결과와 활용

- * 대입특별전형시 FLEX 성적 우수자 선발/일부목표고 입시 반영
- * 한국외국어대학교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정하는 인종서 발급
- * 공무원 어학능력평가시험 및 각 기관 직원들의 승진 어학능력 측정
- * 외국어사용업체 및 국내 대기업, 공공기관 입직원의 외국어능력평가

▶ FLEX 제책사항

- * 정부기관 : 행정자치부,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
- * 공 기 업 : 산업은행, 농협, 한국수출입은행,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수출공사 등
- * 기 업 : 삼성전, 삼성SDI, 삼성전기, 에버랜드, 삼성물산, 삼성제지니아, 삼성중공업,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제지, 삼성SDS, 호텔신라, 삼성정제연수, 삼성중공업, 삼성정밀화학, 삼성증권, 에스원, 제일기획, 한진해운, 한진, 동원해운, 동부종합화학, 포스코, 대한항공, 현대해상 등

예비군 전입 신청 안내

1. 신청 대상

- * 입학(입원, 편입, 재입학), 복학, 복수전공, 본교 부속에서 대학원 입학한 자

2. 신청 기간

- * 2006. 2. 13(화) ~ 3. 24(금)까지

3. 신청 방법

- 가. 학교 홈페이지 -> 서울캠퍼스 -> 행정기구 -> 부속기관 -> 비상계획관실 -> 홈페이지 -> 적장예비군 -> 예비군대원신청 -> 예비군대원신청부가기
- 나. 학교 홈페이지 -> 서울캠퍼스 -> 행정기구 -> 부속기관 -> 비상계획관실 -> 홈페이지 -> 대원신고 -> 예비군대원신청 -> 예비군대원신청부가기

4. 유의사항

- 가. 전입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단, 등록금을 분할 납부한 학생은 납부명수증을 지참하여 비상계획관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 나. 2006년도 전역자는 2007년도 1학기 등록기간에 전입 신청하기 바랍니다.
- * 학교에 전입 신청을 하지 않은 예비군 1년차는 동원훈련대상(28~36시간)이 되지만 전입 신청 후 2주는 학생 예비군 신분으로 8시간만 교육훈련을 받게 됩니다. 지역 예비군 중대에서 소집통지서에 의한 교육훈련 분할 전입 신청을 하여야 학교에서 보충 교육훈련을 받지 않음으로 가급적 조기에 전입 신청하기 바랍니다.
- 다. 타 지방 예비군에 편입된 자는 소속 지방을 알려 주기 바랍니다.
- 마. 주소 변경자는 변경된 주민등록장 주소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 바. 기 재학생 중 전입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이번 기간 중 신청 하기 바랍니다.
- 사. 2006년도 예비군 기본교육은 교육훈련 일정 3월 24일까지 신청하여 합니다.

5. 문의사항

- 가. 서울캠퍼스 비상계획관실 2173-2513 ~ 4(학생청년 1층)
- 나. 용인캠퍼스 비상계획관실 031-380-4111, 4119(공대110호실)

서울, 용인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

명사당



정나근
(정치학박사)

만저 신입생들의 입학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금부터 신입생들은 고등학교 4학년생이 아니라 대학 1학년생이다.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 세계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마음 · 리더쉽은 국가의 원동력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200여년동안 엄청난 고도성장을 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다. 그런데 발전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를 관찰해보면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발전한 나라를 보면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다르다. 국민의 마음은 나라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 시대를 사는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역사는 변한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국민은 무엇보다도 자유를 중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창의와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자유로부터 나온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유가 풍성한 나라여야 발전이 가능하다.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면 발전할 수 없다. 자유가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자유와 더불어 경쟁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질적 관리주의' 이론가인 영국의 J.S. 밀(1806~73)은 이렇게 말한다. '경쟁이 인

간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류역사를 보면 경쟁이 없을 때 인간이 퇴보한다는 것이 경험적인 법칙이다. 자유와 경쟁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발전한다.'

자유를 중시하지 않고 경쟁을 회피하면서 또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선호하는 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공정한 경쟁보다는 남을 시기하여 "배고픈 건 참아도 배아픈 건 못참는다" 그런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또 대부분의 발전하는 나라는 개방적이고 세계화 지향적이다. 내부지향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주의 감정에 빠져 있는 나라치고 잘되는 나라는 없다. 폐쇄적인 나라일수록 국가발달이 어렵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북한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역행하면서 '반의세 자주'의 관념에 빠져 있는 2006년 대한민국의 모습도 시대착오적이다.

국가발전은 위해서는 올바른 리더십 또한

매우 중요하다. 국민을 통솔시키는 지도자를 가진 나라는 발전한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지도자를 가진 나라가 발전한 역사는 없다. 우리 경우를 봐도, 과거 산업화 시대에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 관료, 기업인, 근로자 모두가 잘 살아보자는 마음 하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국민을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은 자유와 경쟁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거부하면서 나라가 잘 되길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 위 연은 교수 자유 기고관으로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후생의 소리

등록금 인상은 '연례행사'... 하나 돌아오는 발전은?

수려한 자연경관, 햇빛이 반짝이는 명수당, 맑은 공기 우리학교는 달력 사진에 나올법한 경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천적인 것에 불과할 뿐 겨울이면 손이 시려워 필기를 못하고 여름이면 땀에 젖어 필기를 못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등록금이 오른다는 학교라기는 하나 매년 연례행사처럼 오르는 등록금 인상은 올해 11.4%로 올림폭 기록을 갱신하는 듯하여 인상을 받자면 인상을 주기까지 한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학교는 그마저 절충한 수치라고하니 이런 것만 지켜서 조차 눈치볼만큼 막을 수 밖에...

가늠이 없으면 오는 게 있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일에는 상성이 필요하다.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의 수급권과 수업 환경 개선의 명목일 것이다. 11.4%가 오른 등록금이 학생들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해보자. 돌아오지 않는 화살처럼 등록금만 내고 그만큼 돌려받는 것만큼 느끼지 못한 다른 누가 학교에 애착을 가질 것이며 누가 학교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는가. 학생들도 역시 학교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인지, 어떠한 혜택을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지 알려주길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 알아내고 누리는 태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학교에 바라는 점은 적어도 좋으니 돌아오는 화살을 맞는 것이다. as fast as you can...

김수현

(아시아아프리카·아프리카에 02)

양정은

(시유럽·영어영문전공 03)

유정

(아시아아프리카·중국에 06)

아쉬움을 남긴 새내기 특집호

"로봇 매니아 채진군"에서 민성군의 사진이 로보트와 함께 찍힌 사진이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아쉽다. 이 새내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좀더 드러내 줄 수 있었음에도, 센스 있는 연출이 부족해 개성이 많이 드러나지 못한 것 같다. 인터뷰하며 찍은 사진이 아니라 기존의 개성이 잘 나타난 사진을 활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기사내용은 선택을 마쳐도 새내기 때의 감동을 다시금 느낄 만큼 흥미로웠다.

새내기특집4면의 '외대인의 하루' 부분이 아쉽다. 새내기 때의 꿈을 뒤엎고 어려웠던 경험을 통해 현재는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은 선택의 조건 같은 내용에도 대체되고 말았다. 단순히 수업 듣고 쉬고 일과를 마치고 하는 모습만 보이나 무료해 보이기도 한다. 굳이 하루가 아니었어도 될 것 같다.

"양 배움터 학위수취식 첫 분리지행"은 처리된 해단신에 또 포함되면 어떨까. 물론 최초이긴 하지만 그렇게 비중 있는 사진이 아닌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면에 처리된 '선택의 한대미' 이런 식으로 새내기를 환영하는 선택의 인사와 조연을 담은 기사를 더 풍성하게 보았을 때, 새내기 특집호였던 '기사거리'보다도 처리된 '가슴'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 시국과 독자(새내기)를 고려한 만큼 등록금에 관한 내용이 조금 더 상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단순히 현재 경과보고가 아닌 각종 합의까지 분석하는 과정 말이다. 각종 기사들의 여백을 활용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

이욱현

(사회·인문전공 04)

늦지 않은 복습

매일 첫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영화 관람과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아이들은 음식점 입구에 있던 물수건을 하나씩 뿔아 들고 손을 닦으며 나왔는데 거리는 눈에 띄는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었다. 아이들 중 고학년인 두 명이 길 거리에 쓰레기를 돌려 버린 것을 보고 동생이 "그러면 안 돼" 하며 자신이 거두는 것을 인상깊게 보았다.

영화관에서 나올 때 역시 좌석 주위와 계단, 출입구 주변에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듯 널린 음식물 봉지와 팔뚝뿔들을 볼 수 있었다. 나는 학기 중의 캠퍼스에서조차 그 규모와 차이를 있을 뿐 쓰레기를 처리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나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쓰레기통이 보다 많은 곳에 설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평소에 제시할 수 있으나 자신의 손이 닿았던 물건은 쓰레기통을 발견할 때까지 주머니나 가방같은 곳에 보관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가 싶으며 영화관 같은 공공장소에는 이 곳에 버리고 커다란 쓰레기통이 하나도 마련되지 있지 않은가. 어쩌면 손 안에 들어온 물건만 소중히 할 줄 알고 제 구실을 다하고 소용이 없어진 물건은 그토록 뒤 돌아보지 않고 깨끗 거리를 건물 밖으로, 발 밑으로 내보내는 것인지...

"아름다운 사람은 그가 다녀간 자리에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다녀간 자리에 지저분한 쓰레기통이 보인다면 그 사람의 기본 소양은 보지 않아도 변한다. 대학생이나 되어 학문과 사회로 나갈 준비에 힘쓰지 않고 내가 너무 진부하고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신의 양심과 사명의 기본 소양은 보지 않아도 변한다. 대학생이나 되어 학문과 사회로 나갈 준비에 힘쓰지 않고 내가 너무 진부하고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신의 양심과 사명의 기본 소양은 보지 않아도 변한다. 대학생이나 되어 학문과 사회로 나갈 준비에 힘쓰지 않고 내가 너무 진부하고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신의 양심과 사명의 기본 소양은 보지 않아도 변한다.

양정은

(시유럽·영어영문전공 03)

유정

(아시아아프리카·중국에 06)

과과 시각

어 오지 않았다. 대학원 또한, 재능의 공약이 전체 기사의 3/2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여학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화관을 꾸리려 했던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 또한 '관리형'이라는 동시대의 특징이 있지 않나 싶다. 다른 소식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뻔한 내용들을 다뤘다는 점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조금만 심경을 더 했더라면 '한국외대'의 현실 다뤄고 멋진 소식을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발췌 2006년이 되었다. 그리고 06학번 신입생을 맞이한다.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알찬 내용으로, 학생들과 친밀해지는 [민족자주연론 외대학보]가 되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조향진

(아시아아프리카·아프리카에 02)

사설

외대의 봄맞이

시간의 흐름은 변함이 없고, 계절의 순환 또한 역전한다. 봄이다. 새내기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두에게 봄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 봄은 '봄은 봄이나 진정한 봄이 아니라' 예전의 봄들과는 사뭇 다르다. 이 봄은 수많은 선택들이 가없는 화성을 지르며 칼날 같은 혹한의 겨울을 건너내고 정취한 봄이기 때문이다.

이제 매캐한 최후판 연기에 힘써인 교정을 눈물과 울분을 토하며 거닐던 암울했던 겨울은 역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겨울과 함께 혁명의 시대도 사라졌다. 물론 아직도 독재권력들이 높은 뿌리 깊은 부정부패, 정권 유지의 도구로 전락한 이념 논쟁, 새로운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골수 수구세력 등 지난 겨울이 남긴 잔재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그러나 이는 세월 따라 곧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이 구시대 잔재들의 청산은 기성세대의 몫이다.

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알리는 전령사인 봄, 이 봄을 싱그럽고 생기 발랄하게 단장하는 것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의 몫이다. 새 부대대 새 술이 담겨야 제멋대로,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세대가 창출하고 바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의 화두는 능력이다. 개인, 기업, 기관, 국가는 모두 전 세계와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제적인 지식과 소양을 겸비하지 못한 개인이나 집단은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만물이 새로운 생명력과 새 옷을 입는 봄, 우리 외대 또한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교수, 직원, 학생 모두는 새로운 시대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개혁하고 변화해야 한다. 또한 국제전문인력 양성이란 소명에 걸맞은 충실함을 성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개혁은 예산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학교당국은 교육 중심의 예산편성을 통해 고품격 교육역전, 최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서둘러야 한다. 학생들 또한 새 시대의 주역이란 자부심과 소명감을 되새기고, 이에 부합하는 지식과 인격 연마에 충음을 아끼어야 한다. 그리고 교수와 직원은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외대가족 모두가 화합하여 한 마음으로 매진할 때 외대는 '봄다운 봄', '생명력이 충만한 봄'을 맞이할 것이고, 이는 외대를 명문사학으로, '세계 속에 우뚝 솟은 외대'로 자리매김시키는 결실로 이어질 것이다.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가 모처럼 흙속의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봄맞이'를 소망해 본다.

※ '미네르바'는 국제정치정보외의 기사체로 운영됩니다.

BRICs의 부상과 러시아



박상남

(외국문화연구센터 교수
모스크바국제대 정치학박사)

러시아는 분명 대강국이다. 그 요인으로는 세계 최대의 자원강국이라는 자산에서 오는 막대한 오일머니와 푸틴집권 이후의 정치적 안정, 아직도 경쟁력을 가진 기초과학기술, 이렇기까지 거저 정착 단계에 들어선 시장경제가 많은 한계 속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부활하는 러시아의 경제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관련 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동에 이어 새로운 에너지 공급지로 떠오르고 있는 러시아는 고가치 시대의 오일달러유입으로 인해 경제회복이 가속화 되고 있다. 유크라이나 가스공급중단 사건 같은 러시아의 위력은 동시베리아 에너지 자원을 한

국과 중국, 일본에 공급하기 위한 송유관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총체적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글로벌시대에는 에너지가 국제사회를 통째로 움직이는 위험적인 전략자원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에 가장 역동적인 경제발전과 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이 상호 공동 번영을 위한 통째로 발전한다. 러시아는 그런 통째를 위한 에너지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자원을 지역적 제약공간에 한정적으로 편입시킨다는 관점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방안들이 수

립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협력 방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러시아-중국-한국의 3자간 가스관 부설 프로젝트가 있다. 그리고 사할린, 동시베리아(나호트카)를 통한 송유관, 극동의 대륙붕에 있는 러시아의 석유가스 산지들을 개발하는 다자간 협력 사업에 한국 자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 러시아는 BRICs 국가 중에서 우주공학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란 의미이다. 그동안 민간기업과 연구소들이 개별적으로 러시아과학자를 초청하는 방식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BRICs 국가들 사이에 연구소나 민간기관별로 분야별 공동연구 또는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세계적인 위위를 보이고 있는 IT기술과 디지털, 디자인기술 등에 러시아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심층 활용한다면 러시아의 첨단IT기술이전 및 양국의 공동발전의 최적인 협력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셋 번째,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량적 국가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 이 사업이 조상성태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의 핵 위기 해결과 북한체제의 성격이 변화될 경우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박남숙 소장 인터뷰

커뮤니케이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와 핸드폰 등의 매체를 통해 의사소통 생활을 해온 A 군. 대학생이 된 지금, 그는 큰 고민이 생겼다. 오랜 컴퓨터 생활 때문인지 키보드로는 대화를 잘 하면 서도 실제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려서였다. 실제로 얼굴을 보고서는 대화도 잘 못했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싫다. 컴퓨터에서는 키보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 갈 수 있는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만 난다. 사람들과 눈 마주치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잘 못한다. 처음 보는 사람이나 한 두 번 본 사람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대학 수업은 PPT(Power Point)를 활용된 발표 수업도 많고, 조별 수업도 많았는데... A 군은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 '대화'의 어려움을 느껴 지금도 O.O화법학원을 다닌다고 했다.

"사람과 마주 하는 것이 요즘은 어색하다. 데이트나 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A 군은 토로했다.



이런 사례가 학내에도 있나?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한 학생은 4년 내내 발표 및 조별 형태의 수업은 하나도 수강하지 않다가 회사에 취직 후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못해 상담소에 찾아온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이나 프레젠테이션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다. 또한 혼자 공부하며 경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대학입시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오후 3시 수업이 끝나 아이들이까리 농구나 축구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람들과 많이 맞부

딛고 놀면서 공동체 의식을 배우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도덕시간에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면서 정작 학생들에게 체험할 기회는 주지 않는다. 대화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에 홀로 고민하다 보니 타인과의 대화를 어색해 하는 것이다.

컴퓨터와 같은 매체들은 대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요즘 학생들은 컴퓨터를 통해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따라서 서로의 얼굴을 맞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컴퓨터, 텔레비전 등의 매체와 '혼자 놀기'에 빠져있다. 그래서인지 오프라인 상의 만남을 피하고,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 내에 연인하는 학우들의 고민인 사립과의 만남에 대한 부끄러움과 말하기 공포증에 대한 현상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무엇이 있나?

많은 학생들이 현상적인 문제만을 보고 화법학원, 웅변학원 등으로 향한다. 그러나 이런 일방적인 해결 방식 보다는 본질적 원인에 먼저 접근해야 한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릭슨은 자아 정체성의 형성과 형성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경험의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제의 원인을 고쳐 나가야 한다.

해결책이다. 또한 동아리나 학회 등 집단생활을 경험하는 것도 좋다.

대인관계 및 말하기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냐? 대인관계는 어렵지 않나? 연애는 아무나 하나? 모두 잘못된 말이다. 연애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역시 연애가 필요하며, 평생을 공부하고 연습해도 어려운 것이 바로 대인관계다.

지금쯤 하이테크 시대이다. 하이테크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은 '하이테크(인간의 감성과 기술의 조화)'라고 생각한다. 21세기 리더는 사람들의 외로움과 소외감에 대해 공감능력을 갖는 사람이다. 외대인을 모두 하이테크를 통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길 바란다.

장소와 기자 seamaria@hufs.ac.kr

“현상보다는 본질적 문제해결 필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

고 이야기하는 친밀한 대인관계 경험이 부족하다. 대인관계에 약해진 요즘 학생들은 타인의 감정을 헤아려야 하는 오프라인에서의 의사소통 보다는 감정을 헤아릴 필요가 없는 온라인에서의 대화를 선호한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을 적게 하고 공감능력을 떨어뜨린다. 결국 사람과 대화하고 만나는 것을 귀찮아하게 되고, 그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대인관계가 좋아지게 된다. 이러한 능력은 공동체 내에서 얼마나 경험을 쌓고 훈련하는가에 따라 발전하게 된다.

학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의 개인적 상담 혹은 집단적 상담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그 밖에 수업방식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발표수업 및 조별 토론수업 등은 매우 좋은

박남숙 교수 추천하는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책!’

- “우울한 현대인에게 밴즈 박사가 주는 충고” / 데이비드 밴즈
- “신사들의 의미” / 김중술
- “사랑의 기술” / 에릭 فرو트
- “현대인의 정신건강” / 이통식

대인 사례 제시

의사소통, 대인관계... 어렵지 않아요~!

대학생활을 비롯한 많은 현대인들의 어려움을 중 하나가 원활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어려움이다. 이에 교내외 교외,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해결 사례들을 제시해본다.

1. 전문가와의 심리상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는 이런 고충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해결방법을 얻을 수 있다.

2. 스피치 학원을 찾는 사람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화술학원, 스피치 학원 등을 찾는다. 그들은 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자신감을 키우고 대인관계 형

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스스로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스피치 교육 전문학원 SNC의 유호연 원장은 “실제로 발표수업에서의 실패와 스트레스를 경험한 학생들이 자신감 있게 말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학원을 많이 찾는다”고 말한다. 유 원장은 “사회적으로도 설득력 있는 발표의 필요성이 증대했고, 이것이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도 발표수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꾸준한 연습과 자기 개발을 통해 표현력 기르기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 동아리 활동으로 친해지기

서울배움터 최성훈(서양·포르투갈어 05)군은 연합봉사동아리인 ‘실천사랑’의 회장을 맡고 있다. 최 군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평소에 관심 있었던 ‘봉사

라는 공감대를 통해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하다 보니 자연히 자기표현을 훨씬 쉽게 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 더 돈독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본인의 경험을 전했다.

4. 학회 공원은 대학생들의 유희유

용인배움터 중국어과의 원외노래학회 ‘공백대’에서 활동한 진연실(아시아어프리카·중국어 05)은 역시 학회활동의 경험을 전했다. 진 양은 “1학년 때 자유전공학부였는데, 만약 학회활동을 하지 않았다더라면 많은 선배, 동기들을 만나지 못해 학교생활이 재미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후배, 동기가 모여 학회활동을 함께 하다 보니 의욕 넘치고 적극적이며 활발한 성격이 되었다”며 “학회활동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유희유 역할을 해 준다”고 강조했다.

5. 인터넷 동호회, 오프라인에서 만난다!

좋아하는 분야를 통해 대인관계를 넓혀나갈 수 있는 인터넷 동호회 활동도 추천할 만하다. 인터넷 여행 동호회 ‘길벗’ 회원들을 만나 보았다. ‘길벗’ 회원인 박성훈(35)씨는 “동호회 회원들과 자주 만나고 여행 하다 보니 어떤 자리에서도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능력이 생겼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함께 자리한 회원들 역시 “정기적인 모임과 여행을 통해 대인관계 형성에 자신감을 얻어 리더십이 생겼다”고 동의했다.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해 스스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고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홍은미 기자 denetola@hufs.ac.kr



▲ 여행동호회 ‘길벗’ 전국여행기행 사진



▲ 전연실 양 학회공연 모습



▲ 스피치학원 강연 현장



▲ 최성훈군 동아리 봉사활동 모습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Korea University Press

352-73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Tel : 02-2173-2494, 2495 / Fax : 02-2173-7122

e-mail : press@hufs.ac.kr



사과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주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의 양서

300여종의 다양한 도서 정보가

http://press.hufs.ac.kr 에 있습니다.

